



우리 미술 탐험하기

•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과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선사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선사 시대의 유적들이 남아 있다. 이동, 채집, 수렵 생활을 하였던 구석기의 것으로는 뎡석기가 발견되었고, 농경, 목축, 정착 생활을 하였던 신석기의 것으로는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토기가 발견되었다. 계급이 발생하고 국가가 성립되었던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것은 고도의 정밀한 문양을 지닌 청동 거울과 고인돌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전 세계 고인돌의 1/3이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곡리에서는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뎡석기가 발견되어 세계에 놀라움을 주었다.



청동기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은 선사 시대 거석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전 세계에 8만 여개가 남아 있는데 그중 1/3이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어 고창, 화순, 강화 등의 고인돌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강화 고인돌(길이 7.1m, 높이 2.6m/청동기/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신석기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 중 하나이다. 빗살 문양은 장식적인 요소의 출현을 보여 준다. 빗살무늬 토기(높이 41cm/기원전 3000년경)



구석기 주먹 도끼는 타원형 몸체를 손으로 잡고 끝의 뾰족한 부분으로 물체를 자르는 일종의 만능칼이다. 아슐리안 형은 양 끝이 모두 뾰족한 형태이다. 한국에서 발견된 이 주먹 도끼로 인해 주먹 도끼가 서양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기존의 학설이 뒤집히게 되었다. 아슐리안 주먹 도끼(길이 23.6cm/구석기/연천 전곡리)



초기 철기 이 청동 거울의 뒷면에는 0.2mm 두께의 머리카락보다 가는 선이 13,300개나 새겨져 있다. 이는 당시 우리 조상들의 청동을 다루는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 준다. 잔무늬 거울(부분/청동/지름 21.2cm/기원전 3~1세기)



신석기~청동기 거대한 암벽에 고래, 거북, 사슴, 멧돼지, 사냥하는 모습 등 약 200여 점의 단순화된 형상이 음양각되어 있다. 사냥과어로 수확을 기원하는 제사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당시의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반구대 바위그림(암각화/높이 4m, 너비 10m/신석기 시대 후기~청동기 시대 전기/울산 울주군 언양읍)